

부처가 없기 때문에 삼라대천세계에 꼭 차 있다!

21면에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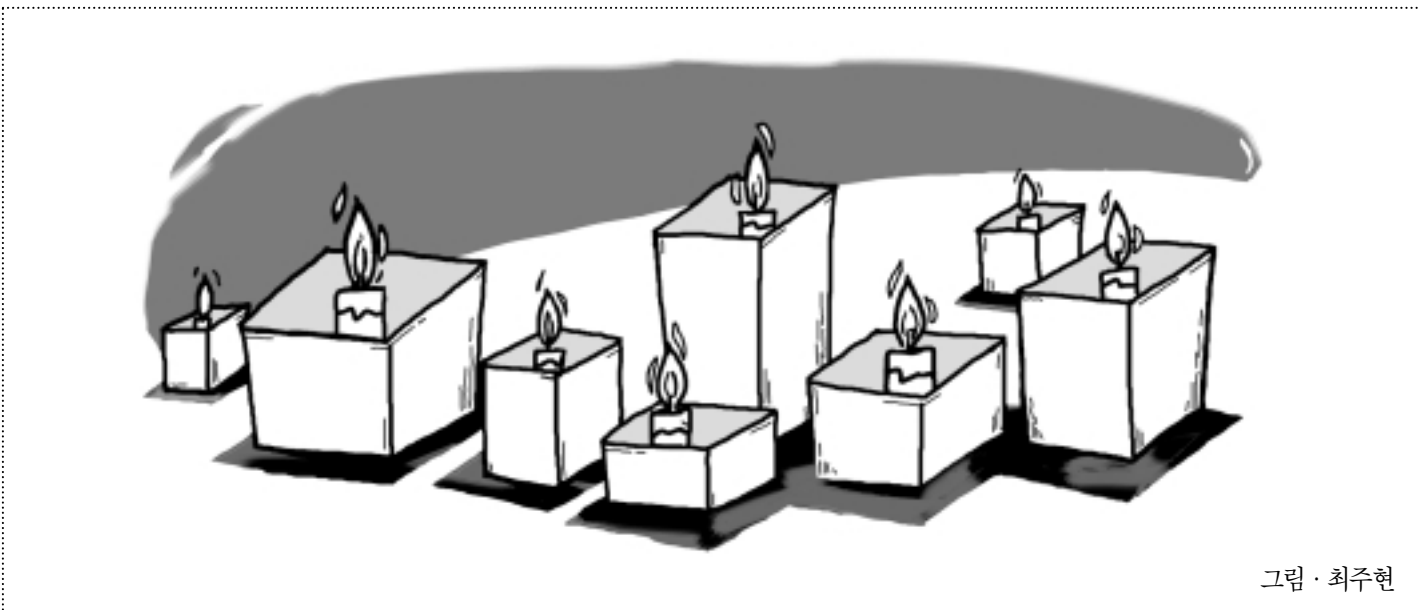
아내가 교회에 가자고 하는데...

문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의 집사람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며 매주 일요일에는 저와 함께 교회에 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불교적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상태지만 진리는 하나라는 생각에 집사람이 교회에 갈 때 보통은 함께 다녔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받으라고 해서 세례도 받았고, 두 아이들도 세례를 받았습다. 또한 장모님도 독실하신 분으로 이웃하여 살고 있습니다. 저는 몇 달 전부터 한미음선원 법형제법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아직 신도 등록도 안 했지만 대행 스님의 설법을 직접 듣고 싶은 마음에 그날만 참석합니다. 게다가 이제는 교회에 안 가려고 핑계거리를 늘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행동을 집사람이 막지는 않지만 너무 힘겨워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처사인지요.

답 여러분이 시집을 가거나 장가를 들어도, 시집 쪽에서 불교를 믿으면 불교로 따르고 기독교를 믿으면 기독교로 따르세요. 따르되 타력 신앙으로 믿진 말고 자기 주체를 믿으라는 겁니다. 자기 가는 데마다, 기독교 교회에 앉아 있어도 네 자리가 내 자리고 불교의 법당에 와 앉아 있어도 네 자리가 내 자리니까 그 믿음을 잊지 말고 지조를 가져라 이거죠. 사람이 그렇게 알파하게 기독교 불교를 따져서 종교의 이름을 짓고 싸운다면 여러분은 부처님이 가르친 뜻은 하나도 모를 것입니다. 그리고 별래처럼 집중처럼 이렇게 운회에 말려서 수억겁을 거쳐도 벗어날 길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을 가끔 합니다만 '부처는 없다! 부처가 없기 때문에 이 삼라대천 세계에 꼭 차 있다.' 이겁니다. 만약에 부처 하나로서 규정되어 있다면 그것은 부처님이 가르치신 뜻이 아니라 답입니다. 부처가 없기 때문에 부처가 꼭 찼지 만약에 부처가 있다면 부처가 꼭 찼을 수도 없고, 과거 현재 미래 삼세를 넘나들면서 그대로 부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입증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부처라는 것은 이름이요, 부처 없는 것이 부처란 뜻은 이 세상에서 아주 제일가는, 세계의 왕을 준대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보배인 것입니다.

그러나 생활 속에서, 남편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아내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서로 감싸 주면서 사셔야 합니다. 지금의 부부묘란 연이 된 게 아니거든요. 형제이기도 했다가 딸이기도 했다가 아버지이기도 했다가, 그렇게 수만 개로 나뉘면서 수만 이름을 가지고 이날까지 나왔거든요. 여러분이 여자로 태어났으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건 어머니예요. 그래서 육을 기르는 거죠. 그리고 정신을 길러 주는 아버지는 태양과도 같고 바람, 공기와도 같다 이겁니다.



절대적으로 거저도 없고 우연히도 없고 꼭 내가 한 것만큼 내가 하는 대로 갈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항상 같이 있는 겁니다. 자식과 부모의 마음은 항상 같이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자식을 낳고 속을 썩다 보니까 전자에 길러 주신 부모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거를 굳이 말을 안 해도 아시겠지만 한마디 합니다. 생각이 남니까, 안 남니까? 누구를 막론해 놓고 자식으로 의지하고 그냥 살다가 자기가 자식을 낳고 그 자식으로 인해서 속을 썩고 또 행복하고, 이런 양면을 우리가 다 볼 때에 '아유! 우리 부모가 나를 기르고 우리 형제들을 기를 때 이리러 했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삼분지일은 알 수 있던 애입니다. 삼분지일을 알면 다 아는 거죠. '아하! 내가 자식을 낳고 키우면서 이렇게 속을 썩다 보니까 아이구, 우리 부모도 그러했구나!' 그러나 지금 부모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식을 두고 사랑했던 그 마음이 한데 합쳐서 동지친 여의주 구슬, 보배, 그것이 불성 자체에 응합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면 부처님한테 갈 필요도 없겠네요." 이러겠지요. 그게 아닙니다. 어느 법당에 가든지, 가톨릭이나 기독교를 믿고 성당이나 교회에 가더라도 주체는 바로 자기한테 있는 겁니다. 자기한테! 그런데도 어느 종교를 막론해 놓고 기복 아닌 게 없어요. 이러니 이거 보라

있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림을 보거나 형상을 보고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러면 부처님 믿으러 갈 게 없지, 형상을 믿지 말라니까." 이러겠지만 그게 아니죠. 당신들의 몸도 형상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몸과 내 몸이 틀어 아닙니다. 이 도리를 아주 한생각을 돌려서 잘 믿는 데 달려 있는 겁니다. 법당에 가더라도, 만 불(萬佛)이 놓여 있더라도 내 한마음의 일 불(一佛)입니다. 만 불도 일 불이요 일 불도 만 불입니다. 이 도리를 꼭 알아 봐야 되겠습니까.

불사를 많이 하는데...
문 요즘에 가는 곳마다 대규모 불사가 진행 중인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경쟁이나 하듯이 이왕 짓는 것 크게 짓자고 마치 유행처럼 앞을 다투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대작 불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런 현상이 한국 불교의 어떤 인연을 말해 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불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사를 시작하는 사찰이면 으레 모연문을 내고 기원법회를 자주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원의 경우는 너무나 조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종무소 보살님께 어떻게 되어 가느냐고 물었더니

그 보살님 말이 "부처님 일인데 잘하겠지요."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딱은 그렇잖아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아무리 부처님 사상이라 하지만 마음을 내고 손발을 놀리는 것은 인간의 일인데 이렇게 조용해도 여러 지원에서 펼쳐지는 불사들이 계획대로 잘되는 것이지요?

답 나는 예전에 저 상원사(上院寺)를 지을 때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놈이 있다면 지을 것이고 네놈이 없다면 못 지을 것이지, 그 뭐 나만이 지으라고 등대다 써 불었나?' 안 그렇습니까? 왜? 딴 사람들의 그 마음을, 어려운 사람들은 아주 귀찮을 거란 말입니다. 괴롭고, 하지 못하니 참 괴롭고 또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조금 하지만 그것도 어떤 때는 '내라! 내라!' 하면 아주 괴로울 겁니다. 외려 스스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내버려두는 게 낫지.

그리고 또, 아래로는 그렇게 내버려두고 편안하게 생각하게끔 해 주는 게 좋고, 위로는 '모두 너의 집인데 너가 있으면 할 거고 너가 없으면 못 할 거지, 뭘 그래?' 하고 하는 거지, 아니 '내 이 집을 못 지으면 꼭 너를 죽인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이걸 내 집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여러분의 집이기 때문에 여래의 집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이 다 여래입니다. 여래의 집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래의 집을 짓는데 여래

들이 알아서 하겠지 내가 왜 애를 씀니까?

그리고 이런 얘기를 내가 가끔 했죠. 양 무제가 딸마 대사한테 물기를 "이렇게 많은 시주를 하고 절을 지어드리고 스님들의 옷을 해드리고 밥을 해드리고 이렇게 많은 시주를 했는데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하고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공덕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말짱했어, 허허. 그랬듯이 우리가 이 마음의 도리하고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헛 시주입니다. 헛 시주!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시주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가 놔도 또 지원의 스님한테도 줘도 그 스님 자체가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 스님 자체가 받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준 것도 아니게 됩니다. 왜냐? 자기 거를 자기가 한 거지, 자기네 그 가족들한테로 무심통장을 한 거지 그건 개별적인 우리들을 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주를 할 때는 항상 생각을 하고 그냥 무심코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를 준 게 아닙니다. 우리 스님네들을 준 게 아니고 불사를 하라고 했어도 그건 앞으로 자기 불사를 하기 위해서 준 거지, 이 중들의 불사를 하게 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딸마 대사께서는 양 무제더러 내가 이 시주를 하고, 내가 시주한 거는 대가를 바라고 또 시주를 내가 했다고 만백성들한테 풍기고 그러고 했으니 무슨 시주가 공덕이 될 게 있느냐 이거야. 그러나 하나도 한 게 없다 이거야. 그런 거와 같이 우리가 시주를 해도 누가 요만한 거 하나 거저 먹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우리 한미음선원의 식구들은 말입니다. 거저 먹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모두 자기네를 자기 밥을 먹고 사는 스님네들 이란 말입니다. 왜 그러면 남들이 갖다 주는 밥 먹고선 왜 자기 밥들이라고 하느냐. 그거는 자기 할 일을 다 잘하고 가니깐, 자기 할 일을 하고 가니깐 그 밥을 자기가 내리먹을 수 있으니까 자기 밥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역만금을 갖다 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넘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눈을 희번덕거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주머니 차지 않을 겁니다. 그거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근중한 내 부모가 내 종자를 줬고 그 종자로 인해서 몸을 탄생을 시켰는데, 그 몸을 탄생을 시킨 것도 제대로 못 가지고 갈 걸, 영원히 가지고 못 있을 걸 왜 그거를 집을 지었습니까? 내가 왜 집을 지니까? 여러분의 집을 왜 내가 집니까? 그냥 그거를 받아서 여러분을 위해서 집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쓰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누구가 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연하는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거저도 없고, 우연히도 없고 꼭 내가 한 거만큼 내가 하는 대로 이렇게 갈 것입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전기 신(편)입학 모집

1969년 설립한 옥천범음회로부터 1987년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로 단체지정 되었습니다. 불교의식과 불교음악, 불교무용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영산재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등록을 향한 인재 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승려 및 일반인을 모집합니다.
* 종단을 초월하여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1. 모집내용: 실기, 이론 강의

학년	강의내용	요일	시간	모집인원
1학년	상주권공과(일용의식)	월, 수	오후 3시-5시	50명
2학년	가배과	목	오후 3시-5시	50명
3학년	영산과	금	오후 3시-5시	50명
불교무용(작법)	바라/나비춤/법고춤	화	오후 3시-5시	50명
불교의식(실기)	시련/대명/관속 등	화, 금	오후 5시-7시	20명
불교의식(이론)	불교의식 이론	화	오후 1시-3시	재학생
불교음악(이론)	불교음악/ 불교무용이론	월	오후 1시-3시	재학생

• 교수진 : 김구해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유자) / 마이윤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준보유자) / 이기봉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준보유자) / 심만준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수) / 김효성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법패 이수자) / 김법현 (동국대 한국음악과 교수, 영산재 이수자) / 한해사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작법 이수자)

2. 응시자격 : 승려, 일반인

3. 전형방법 : 서류전형

● 제출서류 (1) 입학원서
[옥천범음대 http://www.bongwonsa.or.kr/ 다운로드받기]

● 합격후서류 (1) 주민등록등본 및 승적증명서 1부 (2) 증명사진 3매(반명함)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7년 2월 1일 ~ 3월 2일까지

5. 원서교부 및 인터넷 접수처 : 옥천 범음대학 교무처 및 인터넷 접수 tnfus0821@naver.com

6.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7. 입학 및 개강일 : 2007년 3월 5일 월요일 (봉원사 강의실)

8. 특전

- 졸업자에게는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회원 및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 지정을 받을 수 있음
- 신입생, 재학생 성적 우수자 장학금 부여, 국내의 공연 시 우선 선발

9. 문의처

☎ 02-392-3234 / FAX 02-393-9450

이수자 및 전수생 선정을 축하드립니다.

이수자(12명) 장병호(청봉) 조광현(혜산) 김재운(선각) 조명환(효광) 오세균(보은) 박성호(처명) 변호근(춘광) 류지연(화산) 심인(지혜) 김혜숙(선혜) 한정미(혜사) 신금자(주혜)

전수생(17명) 조보현(고담) 박현일(진현) 이주상(성진) 김광화(광호) 엄인용(인성) 김동찬(동인) 서준석(혜성) 이차복(혜명) 김태곤(만결) 김성욱(구수) 김근선(보덕화) 이영근(법일) 방한열(진원) 김창수(행준) 김민정(동환) 김규운(적광) 장원순(행법)